

“동물복지형 축산” “6차산업 육성” “사료값 인하”... FTA대책 제각각

-잇단 FTA 체결에 따라 전남의 농수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FTA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또한 전남의 농수축산업의 발전 전략은?

▲이낙연= 그동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확대에 집중했던 전남의 노력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형확대보다는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해야 한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농 정책'을 계승해 추진해 나가겠다. 특히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확대해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농업계는 두 가지 고민이 있다. 생산비와 가격 문제다. 생산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격 문제가 있어서는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오르지 않는 한 수입을 억제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 전남도가 앞장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

▲주승용=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농수축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비해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전남의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생명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1차 산업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소득 확대에 주력할 것이며, 친환경 농수축산식품 및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전남의 강점인 친환경 농수축산물, 농자재, 식품·생활용품, 체험관광 등을 융·복합화해 농업+관련 산업+생명산업을 아우른 6차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농수축산업도 이제 융·복합 시대다. 식품만 만들 것이 아니라 농수축산물로 의약품도 만들고, 화장품도 제조하는 융복합의 연구개발 확대와 함께 농수축산업 인재육성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석형= 축산 강국과의 가격경쟁력을 위해서는 국내 축산 농가에 대한 특단의 지원·육성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료값 인하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사료 유통과정 거품 제거 및 대량 공동구매 등을 하면 상당폭 인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등에 해외 조사로 단지를 조성, 싼값에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와 함께 ▲축산물 수입 관세액의 축산농가 지원 보조금 편입 ▲축산농가 생산비 보전 및 경영비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남농업과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위해 대중국과 동남아의 수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만약, 지사 당선 후 F1을 중단하거나, 계속 개최한다면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가?

▲주승용= 재정이 열악한 전남에서 F1 유치에 급급해서 약 1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돼 엄청난 재정압박이 되고 있다. 단기적 대회 재추진에 연연하지 않고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장기적인 개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연내에 F1 운영법 인과의 비공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위약금과 국제 신인도 하락 등의 위험, 도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살피서 재추진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계약내용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 수익구조 개선과 조직 정비도 병행하겠다.



이낙연 후보



주승용 후보



이석형 후보

F1대회 어떻게

주승용, 자동차 튜닝산업 등 써킷 활용
이낙연, 도민의견 수렴 원점서 재검토
이석형, 상용차 경주 연중 개최 추진

로 살피서 재추진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계약내용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 수익구조 개선과 조직 정비도 병행하겠다.

또한 모터 스포츠산업, 튜닝산업, 자동차 관련 산업, 국내·외 대회유치 등 다각적인 써킷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 향후 F1과 같은 이벤트성 대형 국제행사는 지양할 것이다.

▲이낙연= 전남도민은 F1 대회가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F1 성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F1 대회는 지난 4년 동안 1910억 원의 누적적자를 냈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원할하지 않아 전남에 집이 됐다. 대회가 없는 2014년 한 해 동안 F1대회 적자개선 가능성과 도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파악해 대회 개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F1 경기장 시설에 4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대회 재개 여부를 고려할 때 이미 전남의 소중한 자산이 된 F1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 즉시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겠다.

J프로젝트 활성화

이석형,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제 숨통
주승용, 진입도로 국고지원 꼭 받겠다
이낙연, 삼포지구에 자동차 레저산업

▲이석형= 정치력 부재와 기획·행정능력 부실이 현재의 심각한 '빛더미 전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들었다. F1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과감한 중지 결정이 현명하다. F1 개최와 관련한 계약서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대회를 치를 수익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차기 대회 개최여부와 경기장 활용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벤츠를 비롯한 상용차 경주가 일 년 내내 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튜닝 산업, 세계적인 자동차박물관,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자동차 성능검사가 100% F1 경기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

-국내의 기업의 무관심 속에서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 J프로젝트 활성화 방안은?

▲이낙연= 서남해안 기업도시 솔라시도 사업은 농수축산·제조업에 치중된 전남의 산업구조를 관광레저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 해마다 20%씩 증가하는 중국 관광객을 유인해 대중국 관광거점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솔라시도 사업의 많은 부분을 골프장 건립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2014년부터 자동차 튜닝산업이 합법화됐다. 삼포지구에 인접한 프리미엄 자동차연구센터와 F1경기장의 인프라를 연계해 자동차 레저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는 경기침체 속에 어떻게 대형아울렛 유치 등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올 것인가다. 도지사로 일하게 된다면 솔라시도를 전남의 자람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주승용= J프로젝트는 2003년 개발계획 수립 이후 10년 동안 담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런데 작년부터 개발이 본격화됐다. 이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간척지 양도·양수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많다. 우선 접근도로 사업

비 2750억원의 절반을 전남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새만금의 진입도로를 국고로 지원하는 만큼 같은 성격의 J프로젝트 진입도로도 당위성을 강조해서 국고지원을 받으려 하겠다.

▲이석형= 전남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경제적 낙후와 재정적으로 열악한 전남 서남권의 경제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 정부는 전남의 경우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있기 때문에 서남권에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설득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상당했다. 두 공항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법은?

▲이낙연= 광주공항에 남아 있는 국내선은 올해 서울~광주간 KTX 개통과 함께 무안공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무안공항은 당초 목포공항과 광주공항의 통합을 전제로 개항했다. 2007년 개항 당시 무안~광주 고속도로 건설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접근성 문제로 국내선은 광주공항에 남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08년 무안~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광주까지 30분이면 당게 돼 광주시민들도 큰 불편없이 무안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분리 운영으로 두 공항에게 막대한 적자만 남겼다. 두 공항 모두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충북 오송~송정 간 KTX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이면 오간다. 광주공항이 국내선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석형=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 재추진과 목포권 농수축산물 무역거점도시 정책의 한 축으로 무안공항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에 걸맞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활주로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중국과의 무역 활성화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의 국제규격화가 필요하다.

▲주승용= 2015년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4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면 광주공항은 대구공항처럼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으로 이전해 무안공항과 통합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통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호남고속철도를 나주와 무안공항을 경유토록 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저가항공사 유치 및 국가사업으로 2019년까지 건설할 흑산도경비행장과 연계해 해안을 찾는 중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 최필원기자 cki@kwangju.co.kr

원자력은 만약의 경우까지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중 가장 저렴하고 경제적인 원자력 에너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하기에 -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생각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부품 하나하에 대한 철저한 안정성 검증을 통해
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원자력이 되겠습니다

